

# KT 노동조합

현 장 과 함 께 하 는 노 동 조 합 건 설

# 10 06<sup>th</sup>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2009년 7월 1일(수)

### 민주노총

6·13  
자주통일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6월 13일(토) 저녁 9시부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9주년 기념 자주통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KT노동조합을 비롯해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3천여 명이 함께 했다. 제10기 통일선봉대에 참가한 KT노동조합 중앙상집들도 대회에 참가했다.

### 여의도콘서트 실시

한편, 민주노총은 6월 24일(수) 저녁 7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힘내라 민주주의! 사회연대와 희망을 위한 여의도 콘서트'를 개최했다. YB(윤도현밴드), 크라잉넛, 안치환과 자유, 우리나라, 꽃다지, 장기하와 얼굴들, 잡리스 등이 출연했다. 이날 콘서트는 연봉자와 등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위기, 민생과탄과 실업증대를 막기 위한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 IT연맹

### 사이버통제법 토론회 실시

IT연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이버통제법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쟁점 사항을 여론화하려는 취지로, 6월 16일(화) 국회현정기념관에서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홍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언론사 낙하산 인사, 용산 참사, 광장 폐쇄 등 소통은 커녕 국민을 감압과 공포 정치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국민 연원이 함께 하는 토론회가 사이버통제법을 막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 5차 중집위 개최



IT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6월 26일(금) 오전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IT연맹은 일방적 정리해고를 맞아 다각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포스데이터노동조합(위원장 윤석준)에 가입인증을 전달했다. 연맹 박홍식 위원장은 포스데이터노조 소개와 투쟁경과, 무노조 경영 포스코의 노동탄압 현실을 비판하고, 연맹지원 및 가맹조직 연대로 난국을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박홍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법, 사이버통제법을 포함한 미디어악법, 최저임금 삭감과 쌍용자동차지부 침탈 등을 낱낱이 열거하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힘든 만큼, 더욱 지혜를 모아 7월을 돌파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했다.

## 김구현 위원장, 이동정책실 통해 현장이해 강화 6월 15일 서부지방본부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 함께 하겠다" 약속



▲ 노동조합은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서부지방본부 소속 지부를 방문해 제4차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15일에는 인천지부와 인천NSC지부를 방문했고 16일에는 인천공회지부 등을 방문했다. 이번 이동정책실에는 김구현 위원장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으로 나가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일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노동조합은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서부지방본부 소속 지부를 방문해 제4차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15일에는 인천지부와 인천NSC지부를 방문했고 16일에는 인천공회지부 등을 방문했다. 이번 이동정책실에는 김구현 위원장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으로 나가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일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15일 아침 김구현 위원장과 문경노 서부지방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인천지사 앞에서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우유를 나눠주며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곧이어 출근인사를 마친 뒤 오전 작업을 할당 받은 후 곧바로 신축건물 재배선 작업장으로 출동했다.

### 김구현 위원장, 현장 조합원들과 케이블작업 수행

20여 분을 달려 인천시 논현동에 있는 한 신축건물에 도착한 김구현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케이블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맨홀을 열고 양수기로 물을 빼낸 뒤 케이블 포설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접속점 해체 및 국선변 대조, 심선접속 및 외피 접속, 케이블 포박 및 성단작업 등을 차례로 실시하며 첫 작업을 무사히 끝마쳤다. 김구현 위원장은 작업 도중 수시로 모르는 것은 물어보며 현장 조합원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담당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오전 작업을 마친 뒤 인천지사로 돌아와 조합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는 '위원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사, 법인, NSC 등 각 기관에서 나온 조합원 3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번 이동정책실은 지난 강원·충북·본사지방본부에 이은 상반기 4번째 이동정책실로 노동조합은 매달 1~2회씩 중앙사무집행위원들을 현장으로 파견해 조합원과 함께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 김구현 위원장 KT그룹사 방문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의장으로 조합현황 파악



김구현 위원장은 6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KT그룹노동조합 의장 자격으로 그룹사를 방문했다. 올해 초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구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각 그룹노조 위원장들과 만나 조합현황과 주요활동 등을 파악하고 KT그룹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22일(월)에는 KT데이터시스템(위원장 이철희)과 KT과워텔(위원장 박홍식), 굿모닝F(위원장 김도완), KTH(위원장 김선홍) 등을 방문했고, 23일(화)에는 KT네트웍스(위원장 김대곤), KT링크스(위원장 이삼재), 24일(수)에는 KT텔레캅(위원장 박정수)과 KTFI(위원장 안호경) 등을 방문해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 제5차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하반기에는 조합사업에 더욱 매진하자" 결의



노동조합은 6월 10일(수) 충북지방본부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5차 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자산센터 지부사무실 상면 문제 및 제반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구현 위원장은 2009년 단체교섭이 잘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지방본부위원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하반기에는 조합사업에 더욱 매진해 현장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산센터 상면 문제와 관련해 노사 협의의 후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휴게실 등 복지공간은 기존면적을 준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사무실 규모 조정 시 별도의 회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 수요강좌 실시

중앙상집, PC활용 능력 배양

노동조합 중앙본부는 6월 24일(수) 아침 7시 30분부터 중앙사무집행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요강좌를 실시했다.

이날은 김민수 편집국장이 'MS-WORD 활용'을 주제로 강의를 맡았으며, 다양한 편집기능을 활용해 선전물 만드는 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중앙상집들은 워드기능을 활용해 조합원들과 보다 가까워 질 수 있는 선전물 등을 만들기 위해 강좌에 집중했다. 조합간부의 다양한 전문적 능력배양을 위한 중앙본부 수요강좌는 매주 수요일 아침 실시된다.



## 7월 1일부터 노무상담 서비스개시

KT노동조합(위원장 김구현)은 6월 22일(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대표 정무길 공인노무사)과 자문계약을 맺고 7월 1일(수)부터 노무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솔루션은 앞으로 3년 동안 KT노동조합의 인사 및 노무자문을 맡게 되며 △노동법률에 대한 상시자문 △단체협약 및 조합 규약, 노사협의회 등 조합 제규정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노동관계법령 개정 때 대처방안 자문 △노동시간 대리 △산재재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현직활동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한 노무자문도 실시하게 되며, 각종 자문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매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문계약으로 인해 조합은 물론 조합원들도 폭넓고 전문적인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 상담 방법

노무상담은 대표전화 (02-522-8833) 및 홈페이지 <http://www.best-solution.c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김용규 산업안전국(031-727-4843)]

### 무료 생활법률상담게시판 운영

KT노동조합은 2008년 8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생활법률상담게시판(이하 법률상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게시판은 조합원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고충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법률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개인적 상황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컨설팅을 위해 변호사와의 1:1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르는 조합원 개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 주요 상담내용

- 1. 조합활동 관련 법률지원
  - 사건 발생시 변호사선임 및 조합 신분보장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 2. 조합원 생활법률 지원
  - 전세/부동산매매/보증카드/임금/산재/인사/소송절차/가압류/손해배상/이혼/양육권/상속/호적/개명/의료사고/그외 폭행, 사기 등

### ● 상담 방법

-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http://www.kttu.or.kr)) (생활법률상담 게시판) 이용
- 로그인 후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담당 변호사가 상담 진행
- 담당변호사: 박필서(법무법인 디지털)
- 전화상담 : 031-732-7777

# 2009년도 2차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성황리에 마쳐

##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 조합간부 단결의 장 돼

“교육은 노동조합 일상활동 중 가장 큰 전술이자 무기”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2009년도 제2차 신입지부장 및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신입지부장들과 비전임상집간부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에 참가한 조합간부들은 2박3일 동안 △조합간부 하나되기 △지부대회 준비 및 연습 △조직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 △10대 집행부 상반기 주요활동 △조합원 마음열기 △산업안전교육 △올바른 조합간부의 상 △분반토론 △인사보수제도 및 복지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노동운동 지형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노동조합 일상활동 중 가장 큰 전술이자 무기”라고 강조했다. “조합간부 모두 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화되고 단결하여 KT노동조합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사와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강원지부장 김주봉 교육국장은 참가자대표 선사에서 “조합원을 위해 배운다는 일념으로 계획된 일정을 완성할 것”을 다짐했으며, “조합간부로서 품위를 갖추고 절도있게 생활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진 교육선전실장은 전체 교육일정 및 교육생 지침을 안내하며 “당당하고 열의있는 자세를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전한 뒤, “항상 ‘내가 위원장’이라는 생각으로 현장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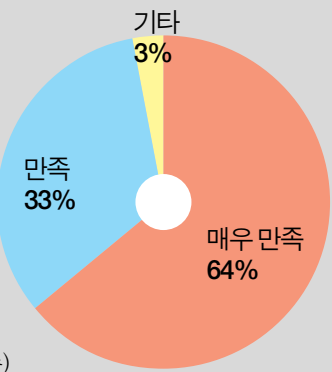
한편, 김구현 위원장은 19일 퇴소식에 참석해 교육에 참가한 조합간부들을 격려하고 노동조합 현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10대 집행부는 고용안정을 기조로 임 없이 달려왔다”고 설명하고, “조합간부들이 모두 하나되어 KT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이고 조합원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 참가자 97% “교육 프로그램 만족한다” 응답

교육이 끝난 후 참가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97%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64%, 만족 33%)한다고 답했다. 이는 조합간부들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참신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데다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도움이 됐거나 재미있었던 강연으로는 △조합간부 하나되기(김인식 교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합원 마음열기(이시은 교수) △윤직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안희아 교수) 등이 꼽혔다. 특히 사내 김인식교수가 진행한 「조합간부 하나되기」교육은 조합간부들간의 단합된 모습을 이끌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기적 교육 실시(연 1회, 분기별 교육)와 지부 부서장 교육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실시한 2009년 1차 신입지부장 교육에 이은 2번째 교육으로, 노동조합은 올 연말까지 분기별로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모든 조합간부들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7일 입소식에서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조합간부의 소명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2박3일간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0여 명의 조합간부들은 선서를 통해 “조합원을 위해 성심껏 배우고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인식 교수의 ‘조합간부 하나되기’ 프로그램, 다양한 율동과 팀워크를 기르는 경기를 통해 어색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정명아 노무사는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복수노동조합과 전임자임금지금지 등 노동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장인태 조직처장은 10대 집행부의 지난 6개월을 설명하고 조합간부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조합원을 위한 단결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이시은 교수는 조합원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작은 의견이라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조합간부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돌아보고 조합간부의 자세에 대해 고민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 조합원과 마음열기는 조합간부부터 먼저 시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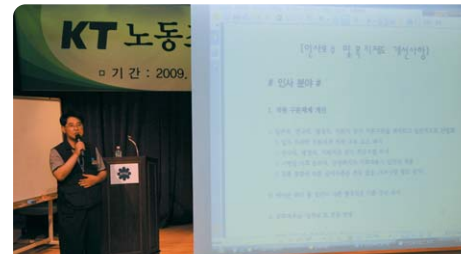
양희아 교수의 ‘윤직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조합간부들은 가벼운 스킨십과 동작을 통해 한층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다.



둘레날 저녁 분반토론 모습. 조합원으로부터 사랑 받는 조합간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토론이 이어졌다.



분반토론 후 조별발표 모습. 모범 조합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성은 물론, 주인의식과 신뢰도가 지녀야 한다는 7조.



셋째날 아침, 한호섭 복지국장은 ‘인사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퇴소식에서 조합간부들을 격려한 뒤,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도 집행부를 믿고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김구현 위원장의 독려에 조합간부들이 박수치는 모습. 조합간부들은 다짐해 초심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원주리더십아카데미 김인식 교수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한 뒤 “교육을 통해 더욱 멋진 조합간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장에 들어가 모범 조합간부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2박3일간의 백박한 교육 일정이 막을 내렸다.

INTERVIEW

### “조합원과 조합간부가 한마음 되는 지부 만들 터”

#### 신임 조합간부로서 지난 2달간 지부를 이끈 소감

대구네트워크운용단 지부장에 당선되고 나서 ‘조합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선배 지부장님께 전화해 물어보기도 했고, 책을 통해 배우기도 했다. 지부장이라는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이 동반돼야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느낀 점

신임 지부장이 되고 나서 처음 받는 교육이라 기대와 설렘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역량교육을 통해 많이 해소했고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들어가면 노동조합 활동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프로그램은 ‘지부대회 준비와 실천연습’, ‘산업안전교육’, ‘조합원 마음 열기’ 등이었다.

#### KT노동조합에 바라는 점

KT노동조합이 좀더 자주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지부가 중앙본부 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신뢰와 믿음을 주고 행동으로 보여 중앙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한 현장 조합원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해 보고하면, 중앙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 문제점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 조합간부로서 포부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걸 맞는 지부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고, 조합원과 조합간부가 한 마음이 되는 지부를 만들고 싶다. 대구네트워크운용단 조합원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차용대 (대구지방본부 대구네트워크운용단 지부장)

### “자주적 지부운영으로 신명나는 일터 만들겠다”

#### 신임 조합간부로서 지난 2달간 지부를 이끈 소감

지난 2달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다. 조합원들에게 먼저 말 걸고, 친근한 조합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부장의 자리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이구나’ 깨닫고 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을 위하는 지부장으로 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

####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느낀 점

조합간부로서 굉장한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부장의 언행, 자세, 역할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알찬 교육이었다. 교육 프로그램들도 좋았지만 특히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부장님들을 만나 동지 의식은 물론, 새로운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보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KT노동조합이 한층 조직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 KT노동조합에 바라는 점

현장과 함께하는 10대 집행부 초기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당장 개선할 점 보다는 10대 집행부의 강령을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지난 5월 29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단체교섭의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 해 주었으면 한다. KT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사랑 받는 조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

#### 조합간부로서 포부

경기북부NSC지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며 조합원 권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보다 자주적인 지부운영으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신명 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유지영 (강북지방본부 경기북부NSC 지부장)

### ■수기 조합간부 역할에 대해 돌아보게 된 교육

신록의 계절을 맞아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새로 뽑으신 신임지부장님들과 지방본부 비전임 상집간부들과 함께 역량강화교육을 받았다.

언제나 교육이라는 것이 받기 전에는 귀찮고, 졸립고, 배고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는데 이번 역시 내게는 ‘무엇 때문에 비전임까지 불러다가 교육을 하나’ 하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참석하게 되었다.

그레도 오래간만에 신임지부장님들과 각 지역의 비전임 국장님들, 중앙의 여러 국장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참석했는데 서울에서 너무 늦게 출발해서인지 오후1시 입소식에 가까스로 시간을 맞추고 짐도 풀기도 전에 정신 없이 교육이 시작되었다.

#### ‘하나되기’ 프로그램으로 조합간부 단결

첫 시간인 조합간부 하나되기는 원주리더십아카데미의 실내체육관에서 인재원의 김인식 교수의 지도로 시작되었는데 오래간만에 에어로빅으로 몸도 풀어보고 단체 농구와 조별게임 등을 통해 낯선 만남을 하나로 이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신임지부장님들과 비전임 간부간 서로 다른 교육을 하였는데 비전임 상집간부들은 복수노동 조합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2010년부터 벌어질 노동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미묘뿐만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정명아 노무사의 강의를 들었다.

저녁 식사 후 차완구 정책기획실장님의 10대 집행부 상반기 주요활동 강의 및 2009년 단체교섭 영상물을 시청하며 지난 6개월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갔고, 중앙뿐 아니라 지방, 지부에서도

무척이나 바쁘게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를 낮추고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자”

교육 2일차에서는 ‘조합원 마음열기’라는 제목으로 코칭 커뮤니케이션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조합원과 한마음을 가지고 조합원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다가서라’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이나 가슴에 와 닿았다.

그리고 김용규 조직3국장님의 산업안전교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합활동에 임하면서 꼭 숙지 해야 할 산업재해의 기초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익하고 필요한 교육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조합간부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자명 비전노동센터 소장의 강의 후 ‘모범간부가 되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분반토론회를 가졌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말고 조합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마지막 교육 3일차에서는 인사보수 및 복지제도에 대해 한호섭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많은 참고가 되었다.

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그동안 해왔던 조합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해보면서 앞으로의 조합활동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해쳐나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준비하고 참여한 모든 조합간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김용범 (본시지방본부 복지·후생국장)

10대 집행부 상반기 주요활동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이동정책실 운영 ·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조합간부교육 실시 · 2009년도 단체교섭 체결 등 상반기 활동 두드러져

KT노동조합 10대 집행부는 2009년 1월 6일(화)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출범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성명서와 노보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 여기며, 대내외적으로 밀려오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뜻을 강조해 왔다. 10대 집행부 조합간부들은 김구현 위원장의 뜻에 따라 고용안정을 소명으로 여기고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하는 집행부 △소통하는 집행부 △공부하는 집행부 △연대하는 집행부 △투명한 집행부를 5대상으로 세우고 현장순회, 이동정책실, 현장실태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10대 집행부 2009년도 상반기 주요활동은 크게 ▲집행부 출범과 김구현 위원장 취임 ▲신임조합간부 역량 강화교육 실시 ▲경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2009년도 단체교섭 체결 ▲통합KT 출범 관련 ▲위원장 현장순회 및 이동정책실 운영 ▲집회 및 연대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조합 10대 집행부 상반기 주요활동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봤다.

- 편집자 주

2009년도 단체교섭 체결

2009년도 단체교섭



- 날짜: 5월 29일(금) 저녁 7시 30분 노사간 조인식 가행 (5월 29일(금) 임시 조합원총회에서 88.5% 찬성 가결)
○ 내용: -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가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8,861명 가운데 25,547명(88.5%)이 찬성. 이에 따라 노사는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정서에 정식 조인
- 자세한 내용은 KTTU 홈페이지 참조

- 진행과정: 5월 13일 본교섭 실사를 기점으로 본교섭 4회, 임금 실무수위원회 5회, 단체협약실무수위원회 1회, 복지 기금협의회 3회, 인사제도개선협의회 10회를 진행

- 인사/보수 제도 개선: - KTF와 통합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체계의 필요성 제기, 고과등급제 도입
- 2001년 현실에서 합의한 직위 미부여 등 독소조항 폐지
- 고과에 대한 보수 연동도 노동강도 심화와 통제 대상으로 변질될 가능성 검토, 전체 95% 종사원들의 임금저하 없는 보수체계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료 상호간 다면평가제 도입
- 투명한 인사제도 및 전체 다수의 임금상승을 위한 차선책으로 평가

통합KT 출범 관련



- 날짜: 6월 1일(월)
○ 내용: 노사는 'All New KT 출범식'을 통해 KT-KTF 합병을 공식 선언
- 김구현 위원장, KTF노동조합 임현재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30여 명과 이석재 회장, 석호의 부회장, 김우식 사장 등 경영진 및 임직원 대거 참석, KBN과 쿡TV 통해 전국에 생중계
- 김구현 위원장, 통합KT 한기족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약속

(노동조합이 본 2009 KT-KTF 통합 과정)

- 1월 6일: 노동조합 10대 집행부 출범, 김구현 위원장 취임
-1월 14일: 이석재 회장 취임
-1월 19일: SKT, 합병 반대 4개교련 보도자료 배포
-1월 20일: KT, 이사회 통해 KT-KTF 합병 추진 의결
-1월 21일: KT, 방송통신위원회 합병인가 요청
: SKT 정민원 사장 등 SKT그룹 사정단 3인 합병 반대 기자회견
-1월 22일: KT 사정수 부사장 라디오서 '합병반대는 억지, 인가 자신' 주장
-1월 23일: KT, 2009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269억원 평가순손실 발생
: 방통위, 공정위에 KT-KTF 합병 여파 의견 의뢰
-1월 28일: 방통위, '합병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시작할 것' 발표
-2월 3일: SKT, 공정위에 합병반대 의견서 제출
-2월 4일: SKT, SK브로드밴드, LGT 등 3사 공정위 방문, 합병반대 의견 전달
: 공정위, '합병 승인 여부 최대한 빨리 결론낼 것' 발표
-2월 10일: 한국계열TV방송협회, 공정위에 합병 반대 의견서 제출
-2월 16일: KT-KTF 합병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SKT, 합병인가조건으로 KT 필수설비 구조분리 공시요구
: 노동조합 성명 발표, [KT 필수설비 분리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조합 국회 합동정책토론회 참가 및 의견서 제출
-2월 26일: 공정위, KT-KTF 합병 승인
: 노동조합 찬성 논평 발표
-3월 2일: 노동조합 성명 발표, [고용보안을 보장하는 유언비어 근절되어야
-3월 4일: 중앙상업 및 본사지방법원 심판, 출산전진 진행
-3월 16일: 노동조합 성명 발표, [방통위의 조건 없는 합병 촉구
-3월 18일: 방통위, KT-KTF 합병 인가 의결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서 합병 최종 승인
-6월 1일: 통합KT법인 출범

이동정책실 운영

- 취지와 과정
노동조합 이동정책실은 중앙본부 정책실을 매달 1-2회씩 지부로 파견해 현장 조합원과 함께 현장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고충과 의견을 수

- 렴하는 제도
- 10대 집행부가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실시
- 현장 조합원의 업무를 이해하고 고충을 체감함으로써 필요 시 사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
- 월 1회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이 일선 현장 방문
-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가설, 정비 및 영등, 망관리 등의 작업 후, 조합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 구성



- 1) 2월 19(목) - 20일(금) ▲강원지방본부
- 강원지방본부 강릉 · 양양 · 삼척에서 이동정책실 운영
- 이동정책실은 2개조로 나누어 1조는 가설, 개통,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2조는 영등과 NSC 등을 방문
- 극심한 기온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태백 · 정선지부에 생수 7,200통 전달

- 2) 3월 30일(월) - 31일(화) ▲충북지방본부
- 충북지방본부 청주 · 충주에서 이동정책실 운영
- 청주지부 영등과 고객센터를 시작으로 충주 · 충북NSC지부 등을 방문해 현장작업을 돕고 간담회 개최

- 3) 4월 15일(수) - 17일(금) ▲본사지방본부
- 대구지역과 부산지역을 돌며 3차 이동정책실 운영
- 본사지방본부 소속 대구고객센터와 대구물류센터 및 부산지역 활동
- '현장중심의 활동'이라는 기조에 맞게 대구물류센터를 찾아 안전교육과 작업요령을 숙지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 진행

- 4) 6월 15일(월) - 17일(수) ▲서부지방본부
-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서부지방본부 소속 지부를 순회하며 4차 이동정책실 운영
- 매일노동신문과 동행 취재 진행

각종 집회 등 행사참여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 일정: 2월 28일(토) 서울 여의도공원
- 내용: 중앙상무집행위원 전원 참가해 기두사위 펼침

- 3 · 8 세계여성의 날 101주년 기념 결의대회 참가
- 일정: 3월 8일(일) - 9일(월), 천계광장 및 서울여성플라자
- 내용: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 및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IT연맹 여성 조합간부 중심으로 결의대회 참가 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간부 역량 강화 수련회' 개최

- 제주 4 · 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 일정: 4월 4일(토) - 5일(일) 제주시청 앞
- 내용: 제주 4 · 3인중항쟁 61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와 4 · 3항쟁 유적지 순례
중앙상무집행위원을 비롯한 제주지방본부 소속 조합원 및 IT연맹 간부 등 총 500여 명 참가

- 5 · 1절 노동자대회 참가
- 일정: 5월 1일(토) 여의도 문화미당
- 내용: 세계노동절 119주년 기념, MB정권 심판 전국민대회

- 5 · 18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해 바중대 열사 추모)
- 일정: 5월 16일(토) 대전
- 내용: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충남지방본부 소속 조합간부 등 300여 명 참가해 정부정책 비판

- 민주노총 제10기 6 · 15 자주통일선봉대 참가
- 일정: 6월 7일(일) - 10일(수) 대구 · 경산 · 광주 · 군산 · 대전
- 내용: 중앙상무집행위원 등 조합간부 10여 명 6 · 15 공동선언 및 10 · 4선언 이행 위한 선전활동 진행

10대 집행부 출범 및 김구현 위원장 취임



- 날짜: 2009년 1월 6일(화)
○ 기조: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 내용: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10대 집행부 출범
- KT노동조합 창립 27주년 기념 및 위원장 취임식
-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로 첫걸음

10대 집행부 5대 상선언

- 서비스하는 집행부
- 소통하는 집행부
- 공부하는 집행부
- 연대하는 집행부
- 투명한 집행부

김구현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 1) 제주지역 현장순회
○ 날짜: 1월 8일(목) - 9일(금)
○ 내용: 제주에서 첫 번째 현장순회를 진행
- 제주지방본부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10대 집행부의 실천 각오를 밝힘

- 2) 전남지역 현장순회
○ 날짜: 3월 9일(월) - 10일(화)
○ 내용: 전남 일대를 순회하며 현장 조합원들을 만남
- 전남마케팅단 소속 원도, 목포, 하양지부 및 무등산중계소 등을 찾음

- 3) 경북지역 현장순회
○ 날짜: 4월 22일(수) - 23일(목)
○ 내용: 경북지방본부 소속 지부 및 용문산중계소 등 순회
- 용문산중계소, 동두천지부, 전국지부 등을 돌며 경북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실천 각오를 밝힘

신인 사원 특강



- 날짜: 1월 19일(월)
○ 장소: 원주리더십아카데미
○ 내용: 2009년도 신입사원(8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특강 실시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현황과 역할 등을 소개
-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각 실 · 처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2009년도 1, 2차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실시



- 1차 날짜: 2월 2일(월)~4일(수)
○ 대상: 신임 조합간부 111명
○ 장소: 원주 리더십아카데미
○ 내용: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대화의 장 확대
-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중앙과 지방본부, 지부간 의사소통 중요성 강조
- 향후 더 다양한 교육기회 희망

- 2차 날짜: 6월 17일(수)~19일(금)
○ 대상: 신임 조합간부 및 지방 비전임 상집간부 1000여 명
○ 장소: 원주 리더십아카데미
○ 내용: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전문적 역량 배양
- 노동현안 점검 및 조합원 마음열기 등
- 향후 더 체계적인 교육기회 기대

경기 지부대회 개최

- 날짜: 2월 13일(금)
○ 목적: 전국대의원대회 앞두고 대의원 281명 선출
○ 내용: 전국적으로 지부대회 개최
- 각 지부의 2008년 활동사항과 2009년 활동계획 보고
- 노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총 281명의 전국 대의원 선출

경기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실시

- 날짜: 2월 20일(금)~27일(금)
○ 목적: 12개 지방본부 주요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 의결
○ 내용: 제주지방본부를 시작으로 경기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개최
- 2008년 활동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결산
- 2009년 사업계획 심의 · 의결
- 고용안정 특별 결의문 채택 등

추모제 개최

- 날짜: 3월 5일(목)
○ 장소: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 대상:故 김낙성 동지,故 김원찬 동지,故 오용철 동지,故 김양중 동지,故 윤준상 동지 추모
○ 내용: 합동추모제를 열어 선배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
-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본부 위원장들과 조합간부, 유덕상 전 위원장, 박홍식 IT연맹 위원장,故 윤준상 동지 가족 등 유족들 참석

2009년도 경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날짜: 3월 23일(월)~24일(화)
○ 대상: 전국대의원, 조합간부 등 총 5000여 명
○ 장소: 지리산수련관
○ 내용: 전국 대의원 280명을 포함해 조합간부, IT연맹 박홍식 위원장과 이석재 회장 등 각계 내외인 총 5000여 명 참석
- 2008년 사업보고 및 예 · 결산,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건이 전국 대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

- 전국대의원 선출방식 변경을 담은 규약개정안이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

- 실 · 처장 인준과 회계감사위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IT연맹 파견대의원,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등 선출
- 우수지부 14곳 및 우수조합원 17명에 대한 표창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개최



- 날짜: 4월 2일(목)
○ 내용: 총 10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인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1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 날짜: 4월 2일(목)
○ 내용: KT노동조합 규정 개정을 위한 심의 · 의결
- 주요 개정사항은 △전국대의원 선출방식 △분회의 지부승격 △지부설치 기준 △본결선거 규정 보완 △여비규정 개정 등
- 규약 개정에 따라 향후 전국 대의원 선출을 지방본부대의원대회와 병행 실시
- 분회의 지부 승격과 관련하여 '2009년도 분회를 지부로 승격함에 따른 지부장선거는 2008년도 각급 대표자 선거 시 당선된 분회장이 지부장으로 승계된다'는 부칙조항 삽입으로 정리

전국 142개 분회 지부로 승격

- 기준: 4월 10일(금)
○ 내용: 전국 142개 분회를 지부로 승격
- 제1차 중앙위원회의 규정개정 의결에 따라 지부설치 기준을 조합원 수에 따른 것을 삭제하고, 동일건물내, 독립건물 단위 로 변경

신설 · 사고지부 지부장 49명 선출

- 날짜: 4월 23일(목)
○ 내용: 신설 및 사고지부 대표자 선거를 통해 신임 지부장 49명 선출

제6회 위원장직 조합간부 추경대회



- 날짜: 5월 7일(목)~8일(금)
○ 장소: 전남 구례 섬진강변 축구장
○ 대상: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12개 지방본부 5000여 조합간부
○ 내용: 5000여 조합간부들의 흥겨운 응원과 열정으로 축구대회 개최
- 축구대회 우승은 제주지방본부, 준우승은 전북지방본부가 차지
- 줄다리기는 전남지방본부가 우승, 준우승은 부산지방본부, 3위는 강원지방본부가 각각 차지
- IT연맹 박홍식 위원장을 비롯해 KT 전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해 KT그룹노동조합 연대의 힘을 보여줌

봉사활동

- 날짜: 6월 30일(화)
○ 장소: 과천 의왕 녹향원
○ 내용: 장애인 보호시설 찾아 제조작업 등 봉사활동

